

原子力廢止政策 再檢討를 促求

스웨덴에서는 201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전폐를 둘러싸고 그 제1단계로 먼저 1995~1996년에 2기의 원자로 폐지가 계획되어 있으나, 그 조기폐지계획에 대해서 정부여당인 사회민주당(사민당)내에서 의견차이가 표면화되었다. 산업계와 사민당 지원조직인 노동조합은 이전부터 원자력의 조기폐지 착수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격렬한 논쟁이 계속될 것 같다. 스웨덴의회는 1990년 가을에 에너지문제에 대해 검토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때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의깊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사민당내의 異論은 당내의 향후 10년간 스웨덴의 에너지정책을 광범한 입장에서 검토하기 위해 설치된 「1990년대그룹」에서 나왔다. 동그룹은 전법무장관 안나그레터·레이용을 주축으로 재무장관 첼오르프·펠트, 동당서기 보·트레슨, 노동조합연합(LO)의장 스티그·멀무 등 동당의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의견은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동그룹이 '89년 8월 18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전폐한다는 목표 그 자체는 직접 부정하지 않았지만, '88년 6월 7일 의회에서 채택된 정부제출의 「에너지 시스템수정을 위한 행동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즉, 에너지 행동계획에서 주요한 정책목표로서 ① 1995년에 원자로 1기를, 또 1996년에 1기를 추가로 폐지한다(2010년부터는 원자력발전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본결정은 다른 발전방식을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다), ② 환경규제의 강화, 특히 탄산가스의 방출량을 장기간에 걸쳐 증가시키지 않는다, ③ 대규모 수

〈스웨덴의회의 총선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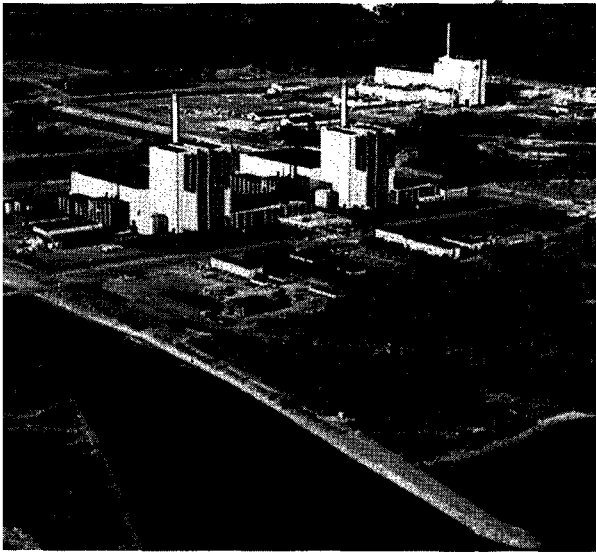
政 黨		88年 9月	85年 9月
與 黨	社會民主勞動黨	157	159
	共產黨	21	19
	(小計)	(178)	(178)
野 黨	穩健黨	66	76
	自由黨	44	51
	中央黨	41	44
	(小計)	(151)	(171)
	綠色黨	20	0
合 計		349	349

(註) 공산당은 사회민주노동당 정권을 지지. 의회는 1원제, 임기는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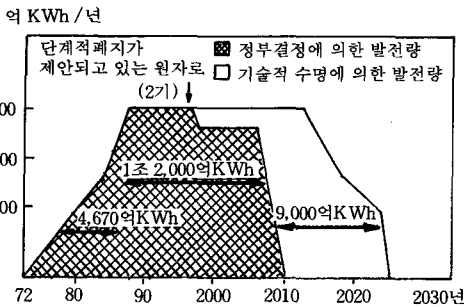
력발전소의 건설을 하지 않는다 등 세가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동보고서는 이것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기 보다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자력이 폐지되고, 수력의 증설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대신에 화석연료(천연가스가 주요한 선택으로서 기대되고 있다)의 소비가 증대될텐데, 탄산가스의 방출, 특히 교통기관에서의 탄산가스 방출을 급속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없다면 이 세가지 정책목표는 상호 모순된다. 이 때문에 동보고서는 「세가지 목표 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의 재검토(포기)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우기 동보고서는 에너지절약과 전기요금의 인상에 의해 많은 전력다소비 기간산업은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어 세계시장에서 스웨덴을 불리한 입장에 몰아넣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사민당의 1990년대그룹 보고서에 대한 반응에 대해 먼저 원자력산업계는 정부의 원자력폐지정책의 결함을 노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종래에도 노조로 부터의 비판은 있었으나, 사민당 간부와 정부자료수준에서도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이 공공연하게 나온 것이 주목된다. 펠트 재무장관은 「의회가 탄산가스의 방출 증대와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다면, 원자력발전의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스웨덴의 원자력발전전력량(추정)〉

이에 대해 정부의 잉그벌·칼슨수상과 빌기터·달 환경에너지장관은 동보고서의 발표후에 즉각 1990년대 중반에 2기의 원자로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금년에 새로운 에너지계획의 작성을 약속했다.

현재 정부내에서는 「에너지행동계획」에서 밝힌 원자력폐지에 의한 대체전력 공급확보, 전력

절약계획, 전력다소비산업의 경쟁력 유지 등 과제에 대한 몇개의 전문가그룹이 검토하고 있으며, 1990년 봄까지 정부에 검토결과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의회는 에너지문제에 대한 체크포인트 시기로서 1990년을 설정하여 이 검토결과를 분석하거나, 2기 원자로 폐지에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 금년 11월~12월에 의회에서 전면적인 에너지논쟁이 전개될 것 같다. 의회에서는 여당협력의 공산당과 야당의 중앙당이 1995~1996년의 조기폐지 착수에 찬성, 녹색당이 3년 이내의 원자력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인 온건당이 원자력의 단계적 폐지에 반대, 자유당은 국민투표에 근거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민당의 1990년대그룹 보고서는 향후 동당내에서 논의될 것이며, 1990년 9월의 동당대회에서 중요 쟁점이 될 것 같다. 1987년의 당대회시 1995년부터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간다는 기본적인 결정이 되었고, 그것이 1988년 6월의 의회에서 「에너지행동계획」의 채택으로 이어진 경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사민당의 에너지정책이 변경되어 차기 당대회에서 그 취지가 결의된다면 원자력발전소의 조기폐지 착수는 변경되어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스웨덴원자력산업회의의 칼에릭·빅터 사무국장은 말했다.

스웨덴의 원자력폐지정책은 선진공업국이며 민주국가인 스웨덴의 「장대한 실험」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환경문제와 경제활력의 유지, 에너지의 공급확보 등 구체적 문제에 여하히 대처해 갈 것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정부는 1988년 3월에 「에너지행동계획」을 의회에 제출했을때 「스웨덴의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발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했다」고 말하였듯이 아무리 민주국가라고는 하지만 에너지정책에의 대응이 인기를 얻

기 위한 선택이 농후하다. 또 1995~1996년에 폐지할 2기의 원자로로 Barseback과 Ringhals 두 원자력발전소를 선정한 것은 주변의 인구밀도가 다른 발전소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Barseback발전소의 소유자인 시드크라프트사는 에너지행동계획을 불합리,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하면서, 「1990년 중반까지 Barseback의 1기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소(화석연료발전소)의 건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전력부족에 빠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우기 대체전원의 건설이 가능하다 해도 약 150억 스웨덴·클로네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또 전기요금의 인상에 따라 종이펄프, 철강, 화학 등의 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국민의 생계비를 증대시킴으로써 산업계는 에너지행동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이며, 중요한 외화획득원으로 되어 있다. 정부부처인 산업성도 산업계에 의존하고 있다. 더우기 정부여당의 지지기반인 노동조합도 원자력발전소의 조기폐지는 스웨덴의 산업구조를 바꿔, 그 결과 산업투자를 감소시켜 실업률을 높인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몇 차례에 걸쳐 신문지상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리고 에너지행동계획에 대해서는 전력수요의 예측이 너무 낮다는 비판도 나왔다. 에너지행동계획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력수요의 신장률이 연간 0.5% 이하여야 되는데, 최근의 실적치(1987년 4% 증가)와는 크게 동떨어

져 있다. 또 사민당의 1990년대그룹이 지적하였듯이 탄산가스의 방출규제는 원자력을 대신할 자원으로서 유력한 천연가스의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게 된다. 스웨덴의 경우 2010년까지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전력공급의 약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그 자체도 전폐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 어려움과 비현실성이 한층 선명해질 것 같다. 에너지정책을 체크할 1990년 가을에는 원자력 조기폐지계획의 재검토가 필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1989년 4월의 제22회 일본원산연차대회에서 강연한 ABB아톰사 사장 겸 스웨덴원자력산업회의 회장인 L.포겔슈트롬씨는 다음과 같은 말로 강연을 끝맺었다.

「일본에서는 스웨덴은 탈원자력의 해결책을 찾은 것처럼 반원전그룹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고 나는 들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 스웨덴은 탈원자력의 정책결정을 하여 그 실시방법을 현재 모색중인데, 이것은 매우 어려우며, 환경 및 경제적인 관점에서 매우 비용이 들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지금까지의 강연에서 밝힌 사항은 모두 스웨덴의 현행 에너지정책변경을 지지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원자력발전은 에너지생산수단으로서 점점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때에 스웨덴과 같은 선진공업국이 이와 같은 국제적인 발전상황에서 스스로를 분리시켜, 스웨덴에서 경제면, 환경면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대단히 놀랄만한 일이다.」

英國

勞動黨大會, 15年内 原子力全廢決議案 否決

영국의 제1야당인 노동당(닐·키녹당수)의 연차당대회가 잉글랜드남부의 휴양지 브라이튼

에서 '89년 10월 1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어 동당의 종래 간판정책이었던 「핵무기의 일방적